

# “强팀 이겨야 진짜 强팀...판을 흔들어라”

## KIA, 주중 LG·주말 SSG 상대 홈 6연전

### LG 불펜·SSG 선발 ‘흔들’...필승 해법은 막강화력 공세 박재현·김도영·김호령 ‘필필’·살아난 마운드 ‘상승 동력’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중요한 홈 6연전을 맞는다. 상대는 리그 2위 LG 트윈스와 4위 SSG 랜더스다. 최근 살아난 타선이 상대 마운드를 흔들 수 있는 나가지는 주축이다.

18일 기준 KIA는 43경기 21승 2패 1무, 승률 0.500으로 5위다. 1위 KT와는 4.5경기 차, 4위 SSG와는 1.5경기 차다. 이번 주 결과에 따라 중위권에 머물 수도, 상위권 경쟁에 불을 붙일 수도 있다.

시즌은 어느덧 1/2 지점을 향하고 있다. 각 팀이 41~43경기를 치르면서 레이스가 더욱 치열해

#### ●프로야구 팀별 순위 (18일 기준)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KT	25	16	1	0.610	0
2	LG	25	17	0	0.595	0.5
3	삼성	24	17	1	0.585	1
4	SSG	22	19	1	0.537	3
5	KIA	21	21	1	0.500	4.5
6	한화	20	22	0	0.476	5.5
6	두산	20	22	1	0.476	5.5
8	NC	18	23	1	0.439	7
9	롯데	16	24	1	0.400	8.5
10	키움	16	26	1	0.381	9.5

지고 있다. 이제는 한 경기 결과가 순위 경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점이다.

KIA는 오는 19일부터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LG와 주중 3연전을 치른다. 이어 주말에는 SSG와 맞붙는다. 모두 현재 순위표 위에 있는 팀들이다.

상대 전적에서도 밀린다. KIA는 올 시즌 LG에 1승 2패, SSG에는 2패를 기록 중이다. 안방에서 순위 경쟁은 물론 상대 전적까지 바꿔야 한다.

먼저 만나는 팀은 LG다. 디펜딩 챔피언답게 여전히 탄탄한 전력을 자랑한다. 다만 최근 경기력은 다소 주춤하다. 지난주 팀 타율이 0.230로 공동 8위다. 득점권 타율은 0.178까지 떨어졌다. 찬스에서 집중력이 부족했다.

불펜 난조도 뚜렷하다. 한 주간 불펜 평균자책점(ERA)은 7.43으로 리그 최하위다. 경기 후반 피홈런과 실점이 잦았다. KIA 입장에서 경기 중반 이후 승부를 걸 필요가 있다.

SSG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이 7.47로 리그 10위. 특



박재현



김도영



김호령

(KIA 타이거즈 제공)

히 선발 ERA는 9.89까지 치솟았다. 경기 초반부터 끌려가는 장면이 많았다. 볼넷과 WHIP 등 세부 지표도 좋지 않다. 장타력은 살아 있지만 마운드가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 6연전의 핵심은 KIA 방망이다. LG는 후반이 흔들리고, SSG는 선발진 버티는 힘이 부족하다.

KIA 타선이 이를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지가 관건이다. 최근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난주 4승 2패를 기록했고, 삼성 원정 위닝시리즈까지 만들었다. 무엇보다 투타 균형이 살아난 점이 긍정적이다.

타선은 한 주간 팀 타율 0.306으로 리그 2위다. 득점권 타율도 0.317로 준수했다. 중심에는 박재현이 있었다.

6경기 타율 0.357, 장타율 0.607, OPS 1.007. 단순한 리드오프를 넘어 경기 흐름을 바꾸는 존재가 됐다.

삼성과의 주말시리즈는 강렬했다. 15타수 8안타. 투런 역전 결승포와 동점 투런포까지 터뜨리며 해결사 역할을 했다.

빠른 발을 앞세운 주루는 팀 공격의 활력소였다. 김도영 역시 중심 타선의 무게감을 유지했다. 지난주 3할 타율을 기록하며 홈런 부문 단독 선

두를 지켜냈다. 김호령은 주간 팀 내 타율 1위(0.381)다. 부진 탈출의 신호탄을 쏘았다. 마운드도 살아났다. 한 주간 팀 평균자책점은 3.40으로 리그 1위다. 선발 3.88, 불펜 3.10으로 모두 상위권이다. 시즌 초반 불안했던 경기 후반 영연도 한결 안정된 모습이다.

치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머무르느냐. 상위권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KIA에게 이번 한 주는 단순한 6경기가 아니다. 시즌 중반으로 가는 길목에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주홍철 기자

## 근대5종 서창완, 2년 만에 월드컵 우승

### 아이치-나고야 AG 기대감 ‘업’

전남 근대5종 간판 스타 서창완(전남도청)이 2년 만에 근대5종 월드컵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다.

서창완은 지난 17일 불가리아 파자르지크에서 열린 ‘2026 국제근대5종연맹(UIPM) 월드컵 2차 대회’ 남자부 결승에서 펜싱과 장애물 경기, 수영, 레이저 런 합계 1천505점을 기록했다.

합계 1천504점을 기록한 마테이 루시체(체코·1천504점)를 1점차로 따돌린 서창완은 2024년 4월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월드컵 개인전 이후 2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치열한 접전 끝 마지막 종목 레이저 런이 승부를 갈랐다.

서창완은 레이저 런에 5번째로 출발했지만 안정적인 명중률로 상승세를 이어간 후 구간별 질주에서 스피드를 끌어올리며 앞선 네 명을 따라잡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올해 첫 국제무대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 경쟁력을 입증한 서창완은 오는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 기대감을 높였다.



전남도청 근대5종 서창완이 지난 17일 열린 국제근대5종연맹 월드컵 2차 대회 개인전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국제근대5종연맹 제공>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서창완이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경쟁하는 월드컵 무대에서 값진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남 체육의 위상을 높였다”며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에서도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컨디션 유지 관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3차 대회는 오는 6월9~13일, 파이널은 6월26~28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다. /박희중 기자

## “한 팀에서만 땀 수 있는 건 큰 영광...책임감 느껴”

### ‘원클럽맨’ 광주FC 이민기, K리그 통산 200경기 달성

프로축구 광주FC의 ‘원클럽맨’ 이민기가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장을 달성했다.

이민기는 지난 16일 인천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며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장이라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웠다.

2016년 광주에서 프로 데뷔한 이후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광주 유니폼만을 입고 활약해 온 이민기는 꾸준한 경기력과 헌신으로 팀의 상징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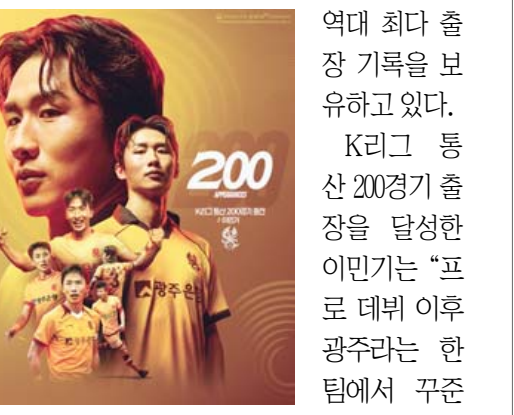
프로 데뷔 이후 안정적인 수비력과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꾸준한 출전 기회를 이어 온 이민기는 광주의 핵심 전력으로 성장했다.

특히 2022년 K리그2 우승과 함께 리그 최다 승점 및 최다승 기록 달성에 기여했으며, 2023년에는 광주의 K리그1 역대 최고 성적인 3위 달성의 주역으로 활약했다.

해당 시즌에는 K리그1 베스트11 좌측 풀백 부문 후보에 오르며 기량을 인정받았다. 팀 내 리더십 역시 돋보였다.

2024년 부주장을 맡아 선수단 중심 역할을 수행한 이민기는 2025년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며 시도민구단 최초 ACL 8강 진출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냈다.

현재 이민기는 구단 역대 최다 출장 순위에서 안영규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K리그1 기준으로도만 한경했을 때는 146경기로 구단



역대 최다 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장을 달성한 이민기는 “프로 데뷔 이후 광주라는 한 팀에서 꾸준한 출장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항상 책임감 있게 뛰며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 대한민국 유소년 야구 발전 기여 공로

### 전갑수 회장,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감사패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대한민국 유소년 야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지난 15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제3회 대통령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결승전이 끝난 후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사진)

이번 감사패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취임 이후 광주 야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왔고, 특히 지난해에 이어 대통령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의 성공개최를 적극 지원해 대한민국 유소년 야구 확대와 지역 야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양해영 회장은 “전국 유소년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광주 체육발전을 위한 전갑수 회장의 노력은 대한민국 야구발전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감사사를 전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광주와 호남 야구팬들에게 뜻깊은 무등경기장에서 미래 대한민국 야구를 이끌 유소년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국대회를 유치·개최해 지역 체육발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유해란, LPGA 크로저 퀸시티 준우승...시즌 베스트

유해란이 LPGA 투어 크로저 퀸시티 챔피언십에서 화끈한 추격전을 벌였지만 우승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유해란은 18일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3타를 줄이며 최종 합계 10언더파 270타로 로티 워드(잉글랜드·12언더파 288타)에 2타 뒤진 준우승을 차지했다.

2023년 LPGA에 데뷔, 개인 통산 3승을 기록한 유해란은 네 번째 우승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다.

선두 워드에 4타 뒤진 3위에서 시작한 유해란은 전반에만 버디 5개를 몰아치며 매서운 추격전을 펼쳤다.

워드도 버디 3개로 응수했지만 6번 홀(파4)에서 더블보기를 하는 바람에 유해란은 공동 선두로 전반을 들었다.

10번 홀(파4)에서 한 타를 잃어 공동 선두에서 내려온 유해란은 심한 오르막 경사로 이뤄진 13번 홀(파4)에서 더블보기 실수를 하고 말



았다. 선두와 순식간에 3타차로 벌어졌지만 워드도 13번 홀에서 한 타를 잃었고, 유해란이 14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한 타 차 추격을 이어갔다. 그러나 워드는 17번 홀(파4)에서 먼 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했고, 유해란은 18번 홀(파3)에서 버디 퍼트를 놓쳐 더 이상 추격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 /연합뉴스